

# 근대기 불교조각의 특징과 일본 불상의 유입

김 연 진\*

- I. 머리말
- II. 근대기 불교조각의 현황
- III. 근대기 불교조각의 전통과 복고적 경향
  - 1. 전통양식의 계승
  - 2. 복고양식
- IV. 일본 불상의 유입과 제작배경
  - 1. 유입 사례
  - 2. 제작배경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의 불교조각은 19세기를 기점으로 재료와 제작기법 등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사찰의 중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수한 조각승을 배출하였던 17~18세기와 달리 19세기에는 불상의 수요가 줄면서 조각승의 활동범위도 좁아졌다.<sup>1</sup>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항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특징인데 이로 인해 불상제작의 주체와 기술에

\* 동아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sup>1</sup>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경인문화사, 2011), p.384.

도 큰 변화가 감지된다.

근대기의 불교조각은 조선후기 조각승의 계보를 이어 전통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양식 일부를 차용하는 복고적 경향을 보인다. 또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제작되거나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불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재 근대기에 해당하는 명문불상은 약 44건 630여점이며 명문이 없는 몇 백구에 해당하는 불상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불상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질로서 제작되었으며, 불상을 만든 조각가의 이름이나 명문표기방식 및 제작연대 표기방식에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기 불교조각에 관한 연구는 기록과 복장물을 통해 알려지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섭·완호·김복진 등을 중심으로 한 작가별 분석이나 제작 배경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편이다.<sup>2</sup> 이 외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일본에서 제작되어 유입되었거나 조선 거주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불상에 관한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서울·군산·인천·목포 등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의 사찰이나 기록 등을 토대로 불상현황과 제작 배경을 밝혔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불상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복고적 경향을 보이는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1909년)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까지 제작된 기년명 불상을 정리·분석하여 근대기 불교조각의 종합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불상 및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전통양식과 복고양식 그리고 일본유입불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례와 제작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sup>2</sup> 근대기 불교조각의 작가에 관한 연구로는 일섭과 완호, 김복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섭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희,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상과 예술관-개인양식 성립기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9 (2010), pp. 75-109; 김영희, 「금융 일섭(1900-1975)의 후기 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4 (2012), pp. 139-178이 있으며 완호 관련 연구는 임보라, 「근대기 경상도 지역의 완호 불상 연구」, 『문물』 7 (2017), pp. 187-216; 문년순, 「불모 양완호의 생애에 대한 재고」, 『항도부산』 26 (2010), pp. 1-48 등이 있다. 김복진에 관한 연구로는 윤범모, 『김복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이 대표적이다.

<sup>3</sup> 조선 거주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불상에 관한 연구로는 지미령, 「일제강점기 한국내의 일본인 관음신앙 고찰-화계사소장 관음석불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8 (2015), pp. 443-464; 지미령, 「군산지역 서국33소관음영장성립에 관한 일고찰-동국사 관음석불군 구성과 관련해서」, 『일본학』 42 (2016), pp. 217-240; 손장원, 「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 연구」, 『인천학연구』 24 (2016), pp. 43-77; 이경화,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흥법대사상과 88영장」,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pp. 171-200 등이 있다.

<sup>4</sup> 최선일, 「20세기 전반 불교조각의 흐름」, 『동악미술사학』 24 (2018), pp. 91-109.

## II. 근대 불교조각의 현황

안양암 마애보살좌상이 제작된 1909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제작된 기년명 불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약 44건 630여점이다(표 1). 이를 대상으로 지역·재질·작가·연대표기 방식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 표 1 〉 근대기 불교조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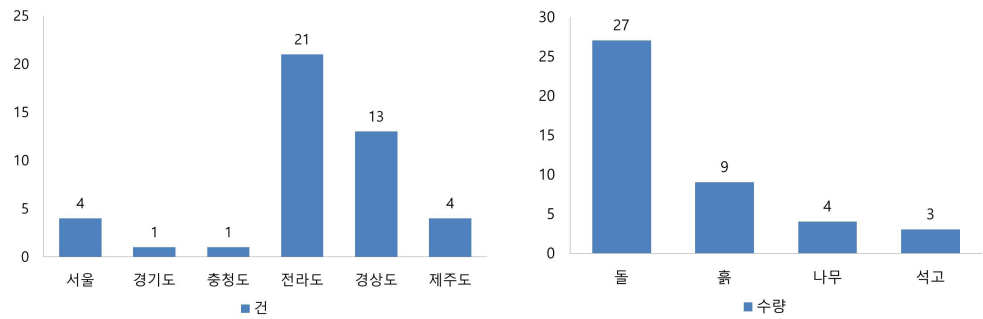
번호	연도	사찰명	명칭	지역	재질	높이 (cm)	제작자	명문
1	1909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서울	돌		몽화 윤동근	隆熙三年
2	1913	금당사	석가삼존불좌상	전라도	흙	48		
3	1915	청암사	불좌상	경상도	나무	107.8		
4	1917	시적사	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20.2	완호	世尊應化 二千九百四十年
5	1918	범어사 청련암	아미타불좌상	경상도	돌	34.5	완호	大正七年
6	1918	통도사 축서암	관음보살좌상	경상도	돌	21.2	시찬	應化二九四十五 大正七
7	1920	화계사	석가모니불좌상 제화갈라보살좌상 미륵보살좌상 나한상	서울	돌	23.1 15.4 16.1 15.2-19	최기남	崔基南大願成庚 申八月日
8	1922	북천사	석가여래좌상 보현보살좌상	경상도	돌	52.2 38	완호	應化二九四九
9	1922	기림사	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77	완호	世尊應化 二九四九年
10	1922	대성사	지장보살좌상	전라도	돌	31.3		
11	1922	동국사	지장보살, 대일여래 외	전라도	돌	61.5		大正十一年發願
12	1923	어울암	석조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30.8	완호 추정	世尊應化2950년

	연도	사찰명	명칭	지역	재질	높이 (cm)	제작자	명문
13	1924	수덕사 향운각	관음보살입상	충청도	돌	700	만공	世尊應化2951年
14	1927	어울암	석조관음보살좌상	경상도	돌	34.7	완호, 시찬	佛紀二九五四年
15	1927	용화사	용화사불좌상	전라도	석고		시찬	佛紀二九五四年 丁卯五月五日
16	1927	용화사	관음보살좌상	전라도	석고	9	시찬	丁卯五月五日
17	1927	백양사	관음보살좌상	전라도	돌	30	시찬	佛二九五四年丁 卯五月五日
18	1928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경기도	돌	813	화웅	
19	1928	보현사	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26	시찬	世尊應化2955년
20	1929	연등사	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56.4	완호	應化二九五六庚 午秋
21	1931	다선암	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38.5		
22	1931	정혜선원	보살반가상	전라도	돌	213		
23	1932	약사암	지장보살좌상	경상도	돌		시찬	
24	1933	여진 미술관	석조석가여래좌상	충청도	돌	118	최김춘 성필	癸酉年四月八日
25	1935	약사사	지장보살입상	전라도	돌	110		
26	1935	정광사	미륵불입상	제주도	흙	119.5	일섭	
27	1936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	서울	돌	176	-	佛紀二九六三年
28	1936	안양암	아미타삼존	서울	나무		보웅, 일섭	
29	1938	금산사	미륵불입상	전라도	석고	1182	김복진	
30	1938	부용사	아미타불좌상	전라도	흙		일섭	
31	1940	원당사	불좌상 및 보살입상	제주도	흙	80	일섭	
32	1940	일락사	마애지장보살입상	전라도	돌	-	-	二千六百年中秋
33	1941	정혜사	불좌상 및 보살입상	전라도	흙	63 80.5 80	일섭	

	연도	사찰명	명칭	지역	재질	높이 (cm)	제작자	명문
34	1941	축성암	마애불좌상	전라도	돌	435		
35	1942	관음사	마애불좌상	경상도	돌	257.5	-	施主朴海隱李 善德華子舞 龍孫文甲化 主宋敬喜佛紀 二千九百六十九 年壬午季秋謹造
36	1942	선광사	불좌상	제주도	나무	79		
37	1943	정혜사	지장보살좌상 및 명부전 일괄	전라도	흙	94.5	일섭	
38	1943	용화사	지장보살좌상	전라도	흙	55	일섭	
39	1944	망월암	불좌상 및 보살좌상	전라도	흙	62.5 57 59.5	일섭	
40	1946	외하리	미륵불입상	전라도	돌	390	일섭 외 석공 7인	
41	1946	문수암	지장보살좌상	전라도	나무	55	일섭	
42	1947	반야사	지장보살좌상 외	전라도	흙	114.4	일섭	
43	1949	보광사	미륵불좌상	전라도	돌	163	일섭	佛紀 二千九百七十三年 五月十五日回 向
44	1949	영산암	영산암 불입상	전라도	돌	148.5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건, 경기도 1건, 충청도 2건, 전라도 21건, 경상도 13건, 제주도 3건으로 전라도, 경상도, 서울 및 제주도, 기타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도 1). 특징적인 것은 경상도 지역의 불상 13건 중 12건은 완호(玩虎)와 그의 제자 시찬(施讚)이, 전라도 지역의 불상 21건 중 9건은 일섭(日燮)이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에 따라 제작자가 달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재질별로 살펴보면 돌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흙 9건, 나무 4건, 석고가 3건이다



도1 근대기 불교조각의 지역별 현황

도2 근대기 불교조각의 재질별 현황



도3 금산사 미륵불입상, 1938, 석고, 11m, 김복진(김광희제공)

(도2). 돌로 만들어진 불상 27건 중에는 불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11건으로 마애불 6건을 제외하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완호와 시찬이 경주에서 생산되는 불석을 활용해 제작했기 때문이다.<sup>5</sup> 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전체 9건으로 그 중 8건을 일섭이 제작하였다. 이전 시기에 없었던 새로운 재질로는 석고를 꼽을 수 있다. 석고를 이용해 만든 불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38년 김복진이 제작한 금산사 미륵불입상이다(도3). 금산사 미륵불입상은 1934년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공모입찰방식으로 복원불사를 추진하면서 김복진이 당선되었으며 석고로 제작하였다. 김복진은 1920년 일본 도쿄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해 석고로 만든 다수의 작품을 제작한 바 있어 석고로 불상을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sup> 불상을 재질별로 나뉘었을 때 불석은 완호가, 소조 및 목조는 일섭이, 석고는 김복진이 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불상을 제작한 작가에 따라 선호하는 재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세 번째, 근대기 불교조각을 제작한 작가를 보면 앞서 언급된 완호, 일섭, 김복진 외 시찬, 몽화 등이 있다. 이들은 다시 조선후기 조각승 계보를 잇는 작



도4 부산 영도 복천사 석조여래좌상, 1922, 불석, 완호(『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편, p235)

도5 양산 통도사 축서암 관음보살좌상, 1918, 불석, 시찬(『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II, p405)

가와 근대적 조각수업을 받은 조각가로서 불상을 제작한 작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후기 조각승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작가로는 완호와 그의 제자인 시찬, 그리고 일섭 등을 들 수 있다. 완호는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부산 영도 복천사 석조여래좌상 및 보현보살좌상(1922년)을 비롯한 10여점의 불상이 확인 된다(도4).<sup>7</sup> 완호는 부산 영도 복천암을 중창하면서 복천사에 후학 양성처로 불화소(佛畫所)를 운영하였는데, 이곳에서 그의 제자인 시찬과 월주 원덕문, 권정두 등이 수학하였다. 특히 시찬은 완호가 제작한 불화 화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제자로 완호와 같이 불상과 불화 모두를 제작하였으며, 양산 통도사 축서암 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한 8점의 불상이 남아있다(도5).<sup>8</sup> 완호·시찬과 달리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일섭은 조선말기 불화승인 보응 문성의 제자로 김제 부용사를 중심으로 약 40년간 작품 활동을 한 조각승이다.<sup>9</sup> 일섭의 스승인 보응 문성은 일섭과 함께 다수의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최근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한 것이 밝혀져 불화와 불상을 함께 제작하

<sup>7</sup> 임보라, 「근대기 경상도 지역의 완호 불상 연구」, 『문물』7(2017), pp.190-191.

<sup>8</sup> 임보라, 위의 논문, p.209.

<sup>9</sup> 김영희,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상과 예술관-개인양식 성립기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9(2010), p.76. 본고에서는 그의 전반기 작품만을 다루고자 한다.



도6 제주 정광사불입상, 1935, 소조, 119.5cm, 일섭(김광희제공)



도7 안양암 마에관음보살좌상, 1909, 돌, 3.53m(문화재청)

였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일섭이 제작한 불상 중 제주 정광사 불입상은 금산사 미륵불입상 공모전 당시 제출한 작품으로 공모전에 당선된 김복진의 작품과 비교된다(도 6).<sup>11</sup>

한편 근대기 마애불에서는 불화승이 밑그림을 그리고 석공이 제작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안양암 마에관음보살좌상은 밑그림은 불화승인 약효(若效)와 몽화(夢華)가 그리고 제작은 윤동근(尹東根)이 하였다(도 7).<sup>12</sup> 보문사 마에관음보살좌상은 화응(華應)이 제작하였는데, 이 역시 불화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8).<sup>13</sup> 이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서울 학도

<sup>10</sup> 최선일,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연구」, 『조선말기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 보응당 문성의 삶과 예술세계』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 학술대회, 2019), pp. 3-23.

<sup>11</sup> 일섭이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에 참여 시기나 과정은 그의 작업일지인 『연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보』에 따르면 1935년 7월부터 입찰에 제출하기 위한 소조불 입상을 조성하였고, 이때 김보용, 김복진, 김일섭, 이석성 등이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입찰 심사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김복진의 불상이 당선된 후 입찰을 위해 조성한 작품을 강경 불교당으로 이안했다가 1941년 제주도 백양교당으로 옮겨 개금하였고 현재 제주 정광사에 소장되어 있다. 김영희, 「1935년 금산사 미륵불 조성 입찰: 사찰불사를 둘러싼 전통과 근대의 경합」, 『금용 일섭, 근대부처를 만나다』 (광주박물관, 2018), p. 176.

<sup>12</sup> 최엽, 「서울 창신동 〈安養庵磨崖觀音菩薩坐像〉 연구」, 『불교미술』 20 (2009), pp. 71-72.

<sup>13</sup> 최엽, 위의 논문, pp. 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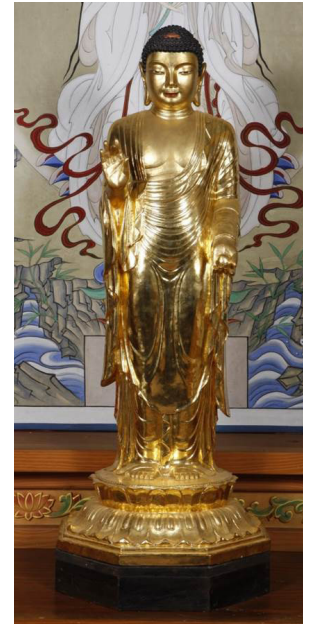
도8 보문사 마에관음보살좌상, 1928, 돌(『한국의 사찰문화재』, 인천광역시, p. 27)



도9 학도암 마에관음보살좌상, 조선말, 돌, 13.4m(문화재청)

암 마에관음보살좌상에서도 금어 장엽(莊擘)<sup>14</sup>과 석수(石手) 김흥련(金興蓮), 이운철(李云喆), 원증천(元曾天), 박천(朴千), 황원석(黃元石) 등이 제작하였다는 내용이 명문에 있어 이러한 경향은 조선말부터 등장하여 근대에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도 9).<sup>15</sup>

근대기 작가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김복진과 같이 조각승이 아닌 근대적 조각수업을 받은 조각가가 불상을 제작하는 사례이다. 김복진은 1920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도쿄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해 高村光雲의 제자가 되었다. 1924년 〈여인입상〉을 석고로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35년 금산사 미륵불입상 공모전을 듣고 높이 1m의 미륵입상을 석고로 제작하였다(도 10). 공모전에 당선된 후 높이 11m의 미륵불입상을 석고로 제작했으며 정혜사에 김복진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고 작품이 남아있다.<sup>16</sup> 1940년 높



도10 공주 소림원 불입상, 1930년 추정, 석고, 91.5cm, 김복진(김광희제공)

<sup>14</sup> 장엽은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불화승으로 1861년 수화승 중봉혜화와 강원 평창 월정사 아미타후불도를 조성하였다. 안귀숙, 최선일 저, 앞의 책, p. 435.

<sup>15</sup> 이경화, 「서울 〈鶴到庵磨崖觀音菩薩坐像〉 연구」, 『미술사연구』 제16호 (2002), pp. 167-171.

<sup>16</sup> 윤범모, 앞의 책, pp. 463-485.

이 33m의 속리산 법주사 미륵불입상을 시멘트로 제작하는 중 사망하였는데, 김복진의 이러한 행보는 이후 근대적 조각 수업을 받을 조각가가 불상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미쳐 속리산 법주사 미륵불입상 제작에 참여한 권진규 역시 불상을 제작한 사례가 있다.<sup>17</sup>

네 번째, 근대에 제작된 불상은 복장발원문과 명문 등으로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표기된 연대는 대한제국의 연호인 융희(隆熙), 일본식 연대표기인 대정(大正), 소화(昭和), 황기(皇記),<sup>18</sup> 불교식 연대표기인 불기(佛紀)와 세존응화(世尊應化) 등이 있다(삽도 1).<sup>19</sup> 대한제국 연호인 융희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 이전까지 사용되어 안양암 마애관음보살 좌상 한 점에 남아있다. 일본식 연대표기인 대정·소화·황기 등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직후부

터 광복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사용되었는데, 군산 동국사 석조불상이나 마산 월영동 부동명왕상과 같이 조선 거주 일본인이 제작한 불상이나 일본에서 제작되어 들어온 불상 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드물게 공주 일락산 마애지장보살입상과 같이 황기가 사용된 사례도 있다.<sup>20</sup> 공주 일락산 마애지장보살입상이 제작된 황기 2600년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으로, 우리나라에서 황기 2600년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린 바 있어 불상 연대 표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 반면 일제강점기 일본식 연대표기를 쓰지 않기 위해 전통양식을 계승한 작가들은 불교식 연대표기인 불기와 세존응화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연대표기를 통해서도 시대성을 읽을 수 있다. 다만 근대 불교조각에 사용된 불교식 연대표기는 ‘불기’와 ‘세존응화’를 혼용해 사용하며, 기원전 1027년을 기점으로 연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삽도 1〉 근대기 불상의 연대 표기방식

구분	대한제국 연호	일본식			불교식	
	융희	대정	소화	황기	불기	세존응화
사례						
	융희3년 (1909)	대정11년 (1922)	소화11년 (1936)	2600년 (1904)	불기2954년 (1927)	응화2945년 (1918)
	안양암 마애관음보살 좌상 (문화재청)	군산 동국사 석조불상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편, p11)	마산 월영동 부동명왕상	공주 일락산 마애지장보살 입상 (정은우 제공)	밀양 어울암 석조관음보살 좌상	양산 통도사 충서암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Ⅱ, p405)

### Ⅲ. 근대 불교조각의 전통과 복고적 경향

이상으로 근대기 불교조각의 현황 지역·재질·작가·연대 표기방식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근대기 불교조각을 전통양식의 계승과 복고양식으로 나누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다.

#### 1. 전통양식의 계승

근대기 불상의 대부분은 전통양식을 계승하여 제작되었다. 전통양식을 계승한 근대불상은 삽도 2에서와 같이 양 어깨를 덮은 대의의 형식,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대의 자락의 형태, 양 무릎 사이에 표현된 옷 주름의 모습 등 전체적인 법의(法衣)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작가에 따라 얼굴의 표현·신체비례·옷 주름의 세부 모양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선후기에서 근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은 조선후기 조각승 집단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상도 지역의 조선후기 양식은 완호를 통해 시찬, 월주, 권정두 등으로 이어져 오며, 재질 역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된 불석을 근대에도 이어 사용하였다. 충청·전라지역은 조선후기 약효로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문성·일섭을 통해 우일(又日)과 석정(石鼎)으로 이어져 현대

<sup>17</sup> 권진규의 불상작품은 일본 유학시절 배나무로 만든 〈보살상〉 1점(1955년, 배나무, 하이트문화재단소장)과 1971년 제작한 〈불상〉 작품 3점이 있다. 〈불상〉은 나무, 테라코타, 건칠 세 종류의 제작기법을 활용해 제작하였다. 그의 불상작품에 관한 연구로는 김이순, 「존재의 내면 표현을 위한 실험과 모색-권진규의 건칠조각」, 『미술사연구』 35 (2018), pp.213-242; 윤범모, 「권진규 조소예술의 종교성과 조형성」, 『현대미술학 논문집』 5 (2001), pp.37-63이 있다.

<sup>18</sup> 황기(皇記)는 일본 왕의 즉위기점으로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황기 2600년 기념식이 크게 열렸다.

<sup>19</sup> 불기(佛紀)는 남방불교식 연대표기로 기원전 544년 부처 입멸을 기점으로 한다. 세존응화(世尊應化)는 북방불교식 연대표기로 기원전 1027년 부처 탄생을 기점으로 한다.

<sup>20</sup> 공주 일락사 마애지장보살입상은 조선전기인 ‘成化(成化)年中秋’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조사를 ‘大慈回向二千六百六年中秋’로 확인되었다. 2600년은 황기 2600년을 의미한다.

〈 삽도 2 〉 조선후기 불상과 전통양식을 계승한 근대 불상 대표사례

	경상도지역	전라도지역
조선 후기		
	창원 성주사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 1681년, 조각승 승호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조각승 무염
근대		
	부산 연등사 지장보살좌상, 1929년, 불석, 완호 (『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p270)	전주 정혜사나한전 석가삼존불상, 1941년, 소조, 일섭 (김영희, 『금용 일섭의 불교 조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5)

에 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재질 역시 조선후기 충청·전라지역에 다수 제작된 소조와 목조불을 이어 일섭 역시 소조와 목조불을 다수 제작한 바 있다.

지역과 재질 면에서 전통을 계승하여 불상을 제작하게 된 데에는 경상도 지역의 완호와 전라도 지역의 일섭이 불상 제작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경위와도 연관이 있다. 완호와 일섭은 스승으로부터 불화와 불상 제작 기술을 배우는 한편 17세기 경상도·전라도 지역에 분포된 불상을 개금·수리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재질과 불상 제작 기술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sup>21</sup> 더구나 이 시기 작가들은 불화와 불상을 함께 제작하여 불상에 불화의 요소가 다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완호와 일섭 외에 부산 범어사 사자암 보살좌상(1904년)을 제작한 병혁(炳赫)이나 부산 백련사 석조여래좌상(1906년)을 제작한 축연(竺演) 등도 불상과 불화를 함께 제작한 바 있어 근대 불상·불화 제작환경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 2. 복고양식

<sup>21</sup> 김영희, 앞의 논문, pp.94-99; 임보라, 앞의 논문, pp.195-202.

근대기에는 전통양식을 계승한 불상이 다수 제작되는 가운데 고려시대 양식을 차용해 제작된 불상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복고양식을 보이는 불상은 마애불과 석불로 다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1909년)과 보문사 마애불좌상(1928년),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1936년)은 암벽에 돌을 새김으로 불상을 표현하였는데, 벽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관음보살좌상임이 밝혀졌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머리에 쓴 보관의 모습인데,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의 경우 관 옆으로 비껴처럼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 장식이 달려있다. 반면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및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관의 형태는 유사하나 양 옆으

〈 삽도 3 〉 근대기 마애불과 고려시대 불상의 보관 비교

	보관의 형태			
	관대가 있는 형태		관대가 없는 형태	
근대				
	서울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1909년		강화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	서울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36년
고려 시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고려 12~13세기	서울 흥은동 마애보살좌상, 고려 12~13세기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985년	금릉 공덕동 마애보살좌상, 고려	남하리 석조미륵불입상, 고려(정은우 제공)	김천 은거리 마애관음보살좌상, 고려
				의생 생송리 마애보살좌상, 고려

〈 삽도 4 〉 이중보개를 착용한 근대불상과 고려시대 석불 비교

근대		고려	
			
수덕사 향운각 관음보살입상, 1924년	와하리 미륵불입상, 1946년, 일섭외7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불입상, 고려	대조사 석조미륵불입상, 고려

로 돌출된 부분이 없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형태의 보관 모두 고려전기 조성된 마애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삽도 3),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과 같이 관 옆으로 돌출된 형태는 보타사 마애보살좌상과 홍은동 보도각 마애보살좌상과 유사하다. 고려 개포동 마애보살좌상(985년)과 금릉 광덕동 마애보살입상 역시 같은 보관을 쓰고 있고, 남하리 석조미륵불입상의 보관 옆에는 관대를 꽂았던 흔적이 남아있어 이 시기 유행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보문사 마애불좌상과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보관은 양 옆으로 돌출된 비녀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역시 고려시대 조성된 김천 은기리 마애보살좌상이나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근대에 조성된 마애불은 고려전기 조성된 마애불과 보관의 형태만 같을 뿐 얼굴 표현, 신체 비례, 착의법 등에서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어 특정 형식만 차용해 불상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불입상에서 보이는 복고양식은 수덕사 향운각 관음보살입상(1924년)과 일섭이 제작한 외하리 미륵불입상(1946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불상은 방형의 얼굴에 손에는 정병 또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중보개를 하고 있다. 이중보개를 한 석불입상은 고려시대 제작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및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불입상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삽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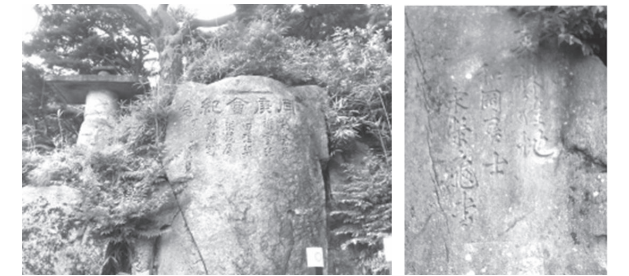
근대기 불교 조각에서 나타나는 복고적 경향은 여러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불상을 참고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대에 제작된 서울 안

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과 서울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제작된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및 서울 홍은동 마애보살좌상과 거리적으로 가깝고, 유명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었다. 따라서 근대에 마애불을 제작할 때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근대 관광의 활성화가 불상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중보개를 착용한 수덕사 향운각 관음보살입상 및 외하리 미륵불입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불입상 및 대조사 석조미륵불입상의 일부 형식을 차용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관촉사와 대조사는 근대에 교통의 발달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1911년

대전-연산간 철도와 1913년 대전-목포구간 철도가 개설되고, 1916년 관촉사로 가는 도로를 확충하고 정비를 하면서 관촉사 석조미륵불입상은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었다(도 11). 원래 ‘은진미륵’으로 알려졌던 석불은 “동양 최대의 미륵”으로 소문나게 되었고, 급기야 서울에서 관촉사로 가는 전용버스가 운행될 정도였다.<sup>22</sup> 일제강점기 관촉사는 불교도량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유락(遊樂)의 장소이기도 했다. 신문과 근대 관광 홍보지에 지속적으로 소개된



도 11 일제강점기 논산 관촉사 모습  
(『朝鮮忠南論山彌勒灌燭寺境內全景』, 신은영, 『미술사논단』42, p113)  
도 12 대조사 앞바위에 근대에 새긴 글  
(서홍식, 『전라금석문연구』24, p9)

<sup>22</sup> 「扶餘探勝團申請期限도 迫到」, 『매일신보』 1938년 6월 1일 기사. 이 외에도 관촉사 은진미륵을 참배하기 위한 부여탐승단과 매일신보 본사에서 모집한 참배객,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있다. 「(광고)灌燭寺探勝會」, 『매일신보』, 1917. 6. 19, 22, 23; 「善成高校生修學」, 『매일신보』, 1920.10.17; 「본사 주최 부여탐승단」, 『매일신보』, 1938. 6. 6; 「(광고)扶餘八景-恩津彌勒-公州鷄龍山探勝團募集」, 『동아일보』, 1938. 10. 9; 「道長官 巡視」, 『매일신보』, 1916. 12. 5; 「總督 灌燭寺 觀覽」, 『매일신보』, 1921. 9. 12; 「齋藤總督出張」, 『매일신보』, 1923. 6. 14; 「總督의 南巡」, 『매일신보』, 1923. 6. 20; 「灌燭寺探勝會盛況」, 당일의 인산인해, 『매일신보』, 1917. 6. 27; 「本社 主催 扶餘探勝, 恩津彌勒佛參拜도 이번 길의 큰 意義, 전용 ‘배스’로 길 짓는 괴롭업시」, 『매일신보』, 1938. 6. 2 등.




과 동시에 부여탐승단, 관촉사에서 열린 미륵제(彌勒祭)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촉사를 방문하게 되었다(도 12).<sup>23</sup>

이 같은 현상은 대조사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 대조사 석조미륵불입상 앞 바위에는 일제 강점기 임천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송영구(宋榮龜)가 권중각(權重珏), 전규계(田珪契), 홍공후(洪兢厚), 임병택(林炳宅) 등과 함께 동경회기념(同庚會紀念)이라고 쓴 글씨가 남아있다. 대조사 옆 바위에도 각자(刻字)가 새겨져 있는데, 1927년 정묘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며 미륵석불 앞에도 가림상지(嘉林像地), 화강거사(和岡居士) 송영구 서(宋榮龜書), 천룡지위(天龍之位), 제석지위(帝釋之位)라고 새겨져 있어 송영구의 주도로 활동한 동갑내기 계가 대조사를 방문한 후 새긴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더구나 관촉사·대조사·홍은동 마애보살좌상 등은 근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이기도 했다. 『조선불교』를 지은 프레데릭 스타(Frederick Starr, 1858-1933)가 남긴 관촉사 사진이나 『동양견문록(Glimpses of Orient)』에 실린 은진미륵 판화, 『조선우화집(Korean Fairy Tales)』에 실린 그림 등을 통해 근대에 관촉사 석조미륵불입상이 가지는 유명세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홍은동 마애보살좌상은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 사진첩이나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의 목판화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어 이미 근대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삽도 5)



이처럼 당대 유명한 관광지였던 관촉사와 대조사의 영향을 받아 이중보개 형식을 차용

〈삽도 5〉 외국인인 남긴 관촉사·홍은동 마애보살좌상의 사진 및 그림

지역	작품		
1 관촉사			
	프레데릭 스타, 관촉사 은진미륵불, 1910년대 (정영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여인』, 2013, p55)	『동양견문록』, 1897년, 판화 (정영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여인』, 2013, p56)	『조선우화집』, 1922년 (정영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여인』, 2013, p56)

<sup>23</sup> 신은영, 「향유와 보호의 역할·은진미륵의 근현대 역사 경험」, 『미술사논단』 42 (2016), pp.109-114.

<sup>24</sup> 서홍식, 「대조사 마애불 주변 암각서」, 『전라금석문연구』 24 (2015), p. 8-9.

지역	작품	
2 홍은동 마애보살좌상		
	아펜젤러 사진첩, 〈보도각백불〉, 1900년 (정영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여인』, 2013, p185)	엘리자베스 키스, 〈보도각백불〉, 목판화, 1920년 후반 (정영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여인』, 2013, p184)

한 석불입상이 근대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근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석불이 전국에 남아있다.

세 번째,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작품에서 작가 개인이 추구하는 예술성과 부합되는 형식을 차용하는 경우이다. 금산사 미륵불입상을 석고로 제작한 김복진은 신문에 경주 석굴암 본존상의 스케치를 소개하기도 하고,<sup>25</sup> 신라 미술품의 조형성에 대해 찬탄하며 제작자들에게 불상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6</sup> 권진규의 불상작품은 신체와 복식은 고려 철조여래좌상을, 보관은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본 따 제작하였다.(삽도 6) 권진규는 유년시절을 춘천에서 보내며 고려시대 철조여래좌상을 접했고, 불상 제작을 위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실견(實見)하였다. 이 외에도 불상 제작 중 필요한 도판 등을 조카를 통해 받아 작품 제작에 참고한 것이 확인된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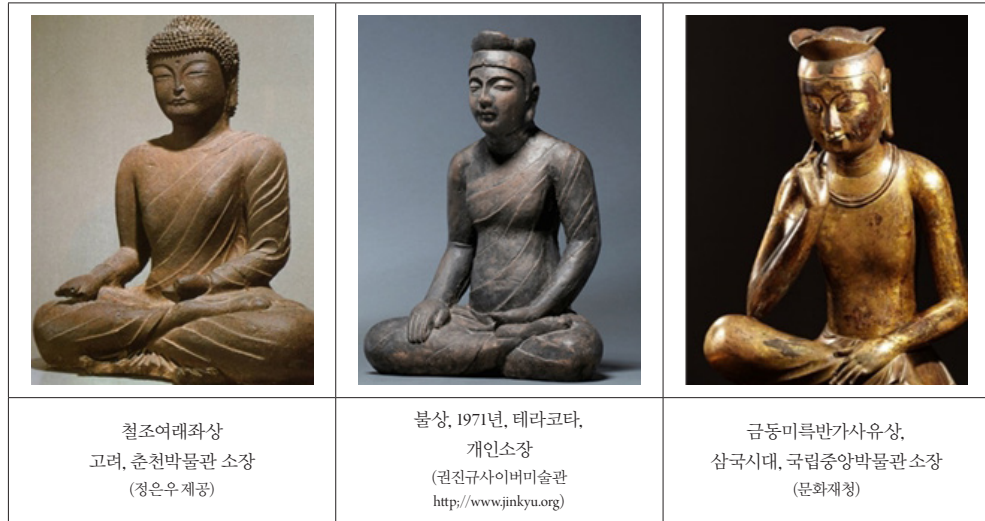
이처럼 근대기 불교조각은 지리적·사회적 배경 뿐 아니라 작가 개인의 경향에 따라 이전에 제작된 다양한 불상의 형식을 차용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sup>25</sup> 『시대일보』, 1925. 7. 1

<sup>26</sup> 윤범모, 『김복진 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 197.

<sup>27</sup> 권진규 사이버미술관(<http://www.jinkyu.org>)

〈 삽도 6 〉 권진규 불상에 보이는 복고적 경향



#### IV. 일본 불상의 유입과 제작배경

전통양식을 계승한 다수의 불상과 복고양식을 보이는 석불 외 근대기에는 개항과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일본과 관련된 불상이 유입되었다. 남아있는 석조불상은 크기가 50-150cm 내외로 전국에 약 18건 200여점 남아있다(표 2). 하나의 돌에 불상과 대좌, 광배를 함께 조각하였으며 광배에는 번호가, 대좌에는 시주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하 일본불상으로 칭한다). 일본불상은 대개 일본인이 조성하여 일본인의 신앙 활동을 위해 봉안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찰 등에 남아있으며,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기 불교조각의 범주에 넣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불상은 서울·인천·군산·목포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sup>28</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지역과 더불어 알려지지 않았던 대구·부산·창원·창녕·청도 등 경상도지역의 사례를 더해 일본불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된 일본불상의 유입사례를 정리하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불상이 제작된 배경과 우리나라 불상 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표 2 〉 근대기 유입된 일본 불상 현황

	지역	소재	제작 시기	수량	광배번호	제작자	시주자	비고
1	군산	동국사	1922	40	-	丸山清三郎	宮崎佳太郎 大澤藤十朗 下田吉太郎	大正十一年發願
2	서울	화계사	1924 추정	25	1, 2, 3, 5, 9, 10, 11, 12, 12, 13, 14, 15, 16, 18, 19, 20, 22, 23, 23, 24, 28, 29, 32	-	-	十三年九月建之
3	인천	부처산 일대	1923	-	-	-	-	현재 남아있는 불상 없음
4	목포	유달산	1931 추정	3	22	-	-	유달산암벽마애불2구, 목포문화원소장(22번), 그의 개인소장 7구 (14, 18, 42, 44, 31, 38번)
5	부산	금강사	-	1 34	24 -	-	-	24번 불상은 如意輪觀音
6	마산	월영동	1935	1	-	-	村崎仁三郎 中派賢潛 北川久吉 堀田孫之 入江政一 田中宗賢 野村一夫	부동명왕마애불 있음. 昭和十一年 六月 吉日
7		관음사	1915-1922	4	71, 75, 76	-	池田族館 木村藤 藤田作一	지장보살상대좌명문 大正四年五月?六日 信五里妙富 大正十一年三月三十日

	지역	소재	제작 시기	수량	광배번호	제작자	시주자	비고
8		해운암	-	13	64, 77, 78, 79, 80, 8, 82, 85, 86, 88	-	高城政田 井野奇口 大西徳雄 高山夕子 椎葉米重 末光四郎 吉田益太郎 中村直治郎	그 외 흥법대사, 부동명 왕상등 있음
9	마산	석봉암	-	2	22, 33	-	武田安此郎 岡本永吉	
10		성덕암	1914- 1946	7	-	-	-	친자지장에 명문
				19	1, 2, 2, 3, 4, 6, 9, 10, 11, 12, 12, 13, 20, 21, 23, 33, 40, 64, 88	-	有日恵美 安達繁松 演日(田)慶治 種尾正朝 西田木惣市	
11	부산	금강사	-	1	24	-	-	
				34	-	-	-	
12	대구	선법사	-	3	47, 70, 87	-	-	
				4	-	-	-	
13	밀양	표충사 내원암	-	1	47	-	-	
14	진해	심원사	-	1	-	-	-	三井寺
				2	52, 62	-	大森長吉 小川平三	
				4	-	-	中村治三郎	山城國楊谷寺
15	창원	구룡사	-	1	-	-	-	
16		백룡사	-	1	51	-	-	
17	창녕	보덕사	-	2	15, 24	-	伊藤虎入 淺新一	
18	청도	보현사	-	4	6, 30, 37, 51	-	-	

〈 삽도 7 〉 일본불상의 유형

유형	광배 번호 대좌 시주자	광배 번호 시주자 없음	대좌 번호 시주자 없음	광배 번호 없음 시주자 없음
사례				
	창원관음사	목포문화원 (지미령, 『월간불광』 522)	대구 선법사 (정은우 제공)	부산금정사

## 1. 유입 사례

일본불상은 광배에 번호가 있고 대좌에 시주자가 있는 것, 대좌에 번호가 있으면서 시주자가 없거나 광배에 번호는 있으나 시주자는 새겨져 있지 않은 것, 광배 번호와 시주자는 적혀있지 않으나 형태가 일본불상과 동일한 4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삽도 7) 지역적으로는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인천 부처산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 화계사, 군산 동국사, 목포 유달산, 대구 선법사, 부산 금정사, 창원, 마산, 진해 일대, 밀양, 창녕 등에 분포하고 있다(삽도 8). 이러한 일본불상이 제작되게 된 배경 중삽도에는 일본의 영장순례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일본의 영장순례는 고대 산악신앙이 발달한 곳에 사찰이 들어서면서 발전한 순례문화로 에도 시대 이후 성지순례를 명목으로 한 유람여행이 유행하면서 발달하였다.<sup>29</sup> 메이지유신

<sup>28</sup> 일본의 영장순례와 관한 연구로는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과 성지순례문화 연구-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 (2008), pp. 95-125; 노성환, 「일본 시코쿠 순례 속의 한국문화」, 『일어일문학』 74 (2017), pp. 249-274; 이은경, 「일본 '시코쿠헨로(四國遍路)'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81 (2012), pp. 370-389 등이 있다.

<sup>29</sup> 일본의 영장순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음신앙을 기반으로 한 불보살순례, 흥법대사 신앙을 기반으로 한 조사순례, 부동명왕, 달마대사, 비구니사찰 등 특정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순례, 민

〈 삽도 8 〉 일본불상 분포도 및 사례

		
<p>서울 화계사 (지미령, 『월간불광』522)</p>		<p>목포문화원 (지미령, 『월간불광』522)</p>
	<p>일본불상분포도</p>	
<p>군산 동국사</p>		<p>진해 심원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편)</p>
		
<p>마산 해은사</p>	<p>마산 관음사</p>	<p>부산 금정사</p>
		
<p>마산 성덕암</p>	<p>창원 구룡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편)</p>	<p>창원 백룡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편)</p>
		
<p>대구 선법사 (정은우제공)</p>	<p>청도 보현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편)</p>	<p>창녕 보덕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편)</p>

이후 교통이 발달하면서 관광화 되었는데, 현대에는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으로 남아있다.<sup>30</sup> 영장순례와 더불어 순례하지 못할 경우 순례지의 흙을 가져와 밟으면 순례한 것과 같다고 여기는 오스나후미(お砂踏み)나 소형석불로 제작하여 사찰 입구나 등산로 곳곳에 두는 우츠시영장(うつし)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지에서도 제작되었다.<sup>31</sup> 대표적인 영장순례로는 관음의 영지를 순례하는 西國33所觀音靈場과 홍법대사(弘法大師 空海, 773-835)의 수행로를 따라 순례하는 四國88所靈場이 있다.<sup>32</sup> 서국33소관음영장과 사국88개소영장은 근대에 신(新)서국33소 관음영장과 신(新)사국 88개소 영장으로 변형되어 순례되었다.<sup>33</sup>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불상은 순례지의 불상을 소형석불로 제작하여 순례하는 우츠시영장의 영향으로 제작되었으며, 신사국88영장, 신서국33관음영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불상은 광배에 새겨진 번호를 통해 관련된 영장순례를 추측해볼 수 있다. 일본 영장순례는 지정된 번호의 사찰에 모셔진 주존불을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각 영장과 관련된 사찰의 주존불과 대조해 우리나라에 조성된 일본불상과 관련된 영장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조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신서국33소관음영장 및 신

간신앙을 기반으로 한 순례 등이 있다. 관음신앙은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33관음의 유래에서 비롯되어 관음의 영지를 순례하는 것이다. 四國三十三所觀音靈場에서 시작해 12세기 奥州三十三所觀音靈場, 13세기 坂東三十三所觀音靈場, 15세기 무렵에는 秩父三十四所觀音靈場, 16세기에는 津輕十三所觀音靈場 순례 등 일본 전국에 200여 곳의 관음영장 사찰이 확립되어 있다. 일본의 조사순례는 四國八十八所靈場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홍법대사쿠가이에 대한 신앙은 知多新四國八十八所靈場, 篠栗四國八十八所靈場 순례와 같이 우츠시 순례로 변형되어 발전했다. 원영상, 앞의 논문, pp. 104-113.

<sup>30</sup> 이은경, 앞의 논문, pp. 379-385.

<sup>31</sup> 오스나후미는 관음성지를 순례하지 못할 경우 각 순례지의 흙을 가져와 모신 것으로 이곳에 참배하면 관음성지에 참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長澤利明, 『江戸東京の庶民信仰』(三弥井書店, 1996), p. 81. 우츠시영장은 경제적, 지리적으로 전통적인 순례코스를 순례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지역의 영장을 순례하는 것으로 '이동영장' 또는 '복제영장'으로 불린다. 손장원, 앞의 논문, p. 51.

<sup>32</sup> 서국33소관음영장은 일본의 관음신앙 중 하나로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33관음의 유래에서 비롯되어 관음의 영지를 순례하는 것이다. 12세기 문헌에서 먼저 등장하며 33소의 관음영험지를 번호, 사찰의 구조, 관음종류, 발원자 등을 중복기재하였고, 15세기에는 현재의 루트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미령, 앞의 논문, pp. 230-231. 사국88영장은 시코쿠(四國) 섬 내 홍법대사의 행적이 남아있는 88개의 사원을 참배하는 것을 말하며 서국 33소관음영장과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성행한 영장순례 중 하나이다. 홍법대사는 일본 밀교 진언종(眞言宗)의 창시자로 고야산(高野山) 금강봉사(金剛峰寺)를 건립하였다. 이은경, 위의 논문, pp. 372-375.

<sup>33</sup> 서국 33관음영장의 경우 1932년 3개 신문사가 독자들에게 인기투표를 하여 인기 있는 사원을 포함해 신서국33소 관음영장이 만들어졌다. 신사국 88소영장 역시 사국88영장을 모방하여 조성되어 순례되기 시작하였으며 四國別格靈場, 小豆島八十八所靈場, 御府内八十八所靈場 등 일본 전국에 만들어졌다.

사국88소영장과 관련된 불상이 가장 많았다. 이를 나뉘보면 신서국33소영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곳으로는 군산 동국사, 서울 화계사, 부산 금강사 등이 있으며 신사국88소영장과 관련된 곳은 목포 유달산, 마산-창원 일대, 대구 선법사 등이 있다. 혹은 인천 부처산 일대나 진해 심원사처럼 두 영장이 함께 나타나는 곳도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 불상이 소량이나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사례를 알 수 있었으나 인천의 경우는 남아있는 불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재단법인 인천신사국팔십팔개소보존회 설립에 관한 건(財團法人 仁川新四國八十八個所保存會設立ニ關スル件)’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sup>34</sup>

불상에 남겨진 명문과 문헌을 통해 제작시기를 살펴보면 1922년 군산 동국사와 1922년 마산 관음사가 가장 먼저 제작되었다. 군산 동국사는 자안관음 뒷면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데, 대정11년(1922) 33관음을 발원하여 9월 17일에 제작되었고 마산 관음사는 지장보살 대좌의 명문을 통해 대정4년(1915) 5월부터 대정11년(1922) 3월에 걸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인천의 경우 문헌을 통해 1923년 봄에 조성하였고, 서울 화계사는 중앙 관음보살 상기단 명문에 ‘十三年九月建之’라고 되어 있어 대정13년인 1924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목포 유달산 부동명왕상 및 흥법대사상을 비롯한 일본불상은 1932년 목포 개항 35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목포사진첩』을 통해 1931년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sup>37</sup> 마지막으로 제작연대가 확인되는 불상은 마산 월영동 무학산 암벽에 조성된 부동명왕상으로 부동명왕상 오른쪽 명문을 통해 소화11년(1935)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마산 성덕암 친자지장(親子地藏)은 ‘辛町’이라고 새겨져 있어 1914년에서 1946년 사이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일본불상의 제작자는 조선 거주 일본인이거나 일본에서 들여온 사례가 확인된다. 군산 동국사는 논산에 거주하는 마츠우라 요시카즈가 기부한 돌을 마루야마 세이자부호가 제작하

였고,<sup>39</sup> 인천은 일본 시코쿠 도쿠시마에서 제작 후 국내로 반입하였다.<sup>40</sup> 서울 화계사는 정확한 제작자는 알 수 없으나 1897년 대웅전 중층을 교토에서 구입한 사례를 비취보아 일본인 석공이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41</sup>

## 2. 제작배경

일본 불상이 조성된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불상 제작의 시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주자는 군산-인천-마산을 중심으로 확인가능한데, 시주자 명단 가운데 확인 가능한 곳은 군산-인천-마산이 있다. 이들 지역의 시주자를 통해 일본불상 제작자와 제작배경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군산은 宮崎佳太郎, 大澤藤十郎, 下田吉太郎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군산풍사조합 창립자, 군산부협의회 의원, 군산상공회의소 임원, 군산 미곡상조합 임원 등으로 군산을 대표하던 사업가들이었다.<sup>42</sup> 인천은 增井久吉, 木村傳三郎, 力武嘉次郎 등 3인이 일본인들의 기부금을 모아 조성했으며,<sup>43</sup> 마산은 西田木惣市, 村崎仁三郎, 吉田益太郎 등이 있다. 마산 성덕암에서 확인된 西田木惣市는 마산 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서전 주조장의 창업주이고, 해운암에서 확인된 吉田益太郎은 포목 도매상, 마산 월영동 부동명왕 마애불의 첫 번째 시주자인 村崎仁三郎은 村崎주조장의 대표로 확인된다.<sup>44</sup> 당시 마산은 청주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일본인이 설립한 청주 및 장류 회사가 많았는데, 불상 조성에 참여한 西田木惣市, 村崎仁三郎 등이 마산을 대표하는 주조장의 창업주인 점이 주목된다.<sup>45</sup> 근대 일본은 단가(檀家)제도를 통해 사찰을 세

<sup>39</sup> 지미령, 앞의 논문, pp. 227.

<sup>40</sup> 손장원, 앞의 논문, pp. 17-18.

<sup>41</sup> 지미령, 앞의 논문, p. 452.

<sup>42</sup> 지미령, 위의 논문, pp. 220-221.

<sup>43</sup> 손장원, 위의 논문, pp. 17-18.

<sup>44</sup> 『마산상공회의소백년사』(마산상공회의소, 2000), pp. 167-175.

<sup>45</sup> 마산은 개항 직후인 1904년 일본인 東忠勇이 최초로 양조장을 설립한 후 꾸준히 양조산업이 발달하였는데, 1928년에는 전국 주조 생산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물맛과 양질의 쌀, 기후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었던 탄주에 필적할 만하다고 하였다. 마산항 개항(1899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인에 의해 다수의 양조장이 설립되었고,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일정양만을 생산하였다. 마산의 장유산업은 1928년 5,000석 정도를 생산하던 것이 1942년 환금장유주식회사가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면서 크게 성장하였고 이외 식품가공공장, 정미소 등 일본인에 의한 공장들이 다수 운영되었다. 허정도, 『근대기 마산의 도시변화과정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p. 60, pp. 234-235.

<sup>34</sup> 이 문헌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종교법인 관련 서류로 인천 신사국영장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스이 등이 조선총독부에 재단법인등록을 신청하면서 만들어진 서류이다. 여기에는 설립허가서, 복명서 불교사유초, 재단법인 인천신사국팔십팔개소보존회 설립신청서, 설립허가원 등이 첨부되어 있다. 손장원, 앞의 논문, pp. 59-60.

<sup>35</sup> 군산 동국사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지미령, 앞의 논문, p. 222.

<sup>36</sup> 화계사 일본불상의 경우 대정13년(1924)와 소화13년(1938)이란 의견이 있다. 지미령은 이와 관련하여 1920년대 도시정책이 활발해진 점, 동국사와 유달산 흥법대사상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점을 들며 1924년에 조성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지미령, 앞의 논문, pp. 450-452.

<sup>37</sup> 이경화, 앞의 논문, p. 173.

<sup>38</sup> 신정은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일대로 1914년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성호리, 성산리를 병합해 ‘신정’으로 불렸으며, 1946년 광복 후 일본식 동명 변경에 의해 서성동으로 변경되었다.

우고 운영하는 시주 또는 후원자 집단이 존재한다.<sup>46</sup> 이러한 후원자 집단을 통한 사찰을 창건하고 시주하는 문화가 국내에 이른 시기부터 들어와 자리 잡은 일본인들 사이에 형성되었고, 특히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가를 중심으로 일본불상을 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불상이 제작된 곳이 개항장인 점도 주목된다. 불상이 제작된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 진해 등은 모두 개항장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구는 개항장은 아니었으나 철도가 놓이면서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한 곳이기도 하였다. 이들 도시는 1882년부터 늦게는 1899년 사이 개항하였으며, 진해의 경우 1911년 군항이 건설되면서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불상은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1920-30년대 제작되었다. 개항과 동시에 불상이 제작되지 않은 것은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설정한 조계지설정 시기와 관련이 있다. 개항 후 개항장 인근에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위한 거주지를 따로 정하여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조계지(租界地)라 한다. 마산의 경우 1902년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마산 해운암 불상의 명문에 1915년에서 1922년 사이 불상이 조성되었다는 명문으로 보아 개항장 인근 조계지에 정착한 후 불상조성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이 조성된 곳은 개항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면서 공원이나 벚꽃명소, 혹은 유곽이 조성된 곳이란 점에서 불상 조성의 목적이 종교적인 순례 뿐 아니라 관광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제작된 관광엽서와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군산 동국사 인근은 유원지이면서 유곽이 형성되어 있었고,<sup>47</sup> 인천은 조성당시 공원으로 만들어 많은 나무를 심은 기록이 남아있다.<sup>48</sup> 서울 화계사 역시 당시 벚꽃 명소로 유명했으며,<sup>49</sup> 목포 유달산은 1932년 등산로가 만들어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렸다.<sup>50</sup> 청주가 유명했던 마산은 술과 꽃의 도시로 불리며 창원천의 벚꽃 아래에서 청주를 마셨다는 기록과 함께 사진이 남아있다.<sup>51</sup> 부산 금강사는 제작시기와 시주자는 알 수 없지만 금강사가 위치한 금강공원 내 바위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1931년 부산 東原嘉次郎이 황기 2600년(1940)을 맞이하여 개인소유의 금강원을 동

<sup>46</sup> 단가라는 말은 근세, 근대 불교 형성과정에서 정착된 개념이다. 고대 불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왕족이나 권력귀족과 같이 사찰의 후원자를 의미하는 단월(檀越)이 중세 무사계급을 포함한 단나(檀那)로 발전하였고, 근대에는 조상숭배의 정신이 더해져 단가가 형성되었다. 원영상, 「단가제도의 성립, 정착과정과 일본불교계의 양상-근대의 불교개혁론에 이르기까지」, 『불교학보』 45 (2006), p. 158.

<sup>47</sup> 지미령, 앞의 논문, p. 234.

<sup>48</sup> 손장원, 앞의 논문, p. 20.

<sup>49</sup> 지미령, 앞의 논문, p. 456.

<sup>50</sup> 이정화, 앞의 논문, p. 173.

<sup>51</sup> 허정도, 앞의 논문, p. 60, pp. 242-243.

래움에 기증하여 유람관광지로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sup>52</sup> 관광, 유원지와 가까운 곳에 일본불상이 조성된 형태는 메이지유신 이후 영장순례지의 관광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어서 불상 조성 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본불상은 우리나라 불상제작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일본인 거주지가 조선인과 분리되어 있었고, 불상이 조성된 곳 역시 일본인 거주지와 인접한 곳이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일본인 거주지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상가거리가 따로 조성될 정도로 분리되어 있었고, 조선인과의 교류는 지도자층 외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본인이 조성한 불상을 조선인이 접할 기회는 흔치 않았을 것이다.

또 일본인이 세운 군산 동국사의 포교대상은 일본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sup>53</sup> 조선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한 일본 불교의 조선인 신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된다.(표 3) 이는 일본 사찰이 우리나라 사찰의 모습과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

〈 표 3 〉 1915년 각 종교 포교소 및 신도 수

교파별	포교소	신도현재수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계
진종본원사파	47	31,649	5,429		37,078
진종대곡파	41	24,075	612		24,687
진종산원파	3	406			406
정토종	38	9,835	1,242		11,077
진언종계호파	2	406	7		413
진언종각파연합	21	7,645			7,645
조동종	30	6,415	372	1	6,788
일련종	20	2,763	88		2,851
법화종	1	771			771
임제종묘심사파	4	1,068	68		1,136

<sup>52</sup> 부산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2007), p. 94.

<sup>53</sup> 지미령, 앞의 논문, p. 226.

## V. 맺음말

근대기 불교조각은 조선시대 전통양식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재질과 기법에 대한 시도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통을 개척하였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현대의 불상 제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대기 불상은 전통양식과 복고양식 그리고 일본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불상으로 크게 분류된다. 전통양식은 조선후기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일섭과 완호로 대표된다. 이들은 자신의 불화소를 중심으로 불상은 물론 불화를 함께 제작하는 특징을 보인다. 복고양식은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불상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특히 고려시대 마애불과 석불에 보이는 보관의 형태 등의 일부를 차용하고 변형하면서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복고양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리적, 작가 개인의 경향과 더불어 근대관광의 활성화가 큰 이유가 되었다. 일본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불상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에 들어와 거주하던 일본인 사업가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불상이 조성된 배경에는 일본의 영장순례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전국에 흩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근대기 불상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특징은 물론 제작 배경 및 사회적인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근대기 불상 사례가 밝혀져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근대(近代, Modern), 불교조각(佛敎彫刻, Buddhist sculpture), 전통(傳統, tradition), 복고(復古, retro), 순례(巡禮, pilgrimage)

■ 투고일 2019년 6월 1일 | 심사개시일 2019년 6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5일 ■

교파별	포교소	신도 현재수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계
진종불광사파	1	252			252
신의진언종풍산파	3	735	35		770
조선사찰	189	99	56,916		57,023

(김진원, 『조선총독부의 불교문화재 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170 일부 발췌)

인다. 예를 들면 부산 금강사(金剛寺)는 1898년 見田政照가 일본 고야산(高野山)에서 불상을 모셔와 사찰을 창업한 곳으로 알려졌다. 1925년 5월에는 전국 각지에 포교소 42개소를 거느리는 사찰로 성장했는데,<sup>54</sup> 1925년 6월에는 흥법대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상영하는가 하면,<sup>55</sup> 매년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 춤을 추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sup>56</sup> 이 같은 점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분위기로 일본불교와 그에 따른 불상 역시 우리나라 불상제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일본인들이 조성한 부동명왕상이나 허공장보살, 아이를 안고 있는 친자지장 등은 일본에서는 흔한 밀교 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상이다.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도상을 불상으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국33소관음 영상이나 사국88소영장과 같은 일본의 영장순례 역시 우리나라 전통적인 순례의 형태와는 달라 광복 후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 갑작스런 광복으로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본인 내에 있었고, 승신식(乘神式)을 통해 위패를 모셔간 신사와 달리 불상은 그 자리에 남아 파괴되거나 전국에 흩어지게 되었다.

<sup>54</sup> 부산일보사, 『新釜山大觀』(1934), p.50.

<sup>55</sup> 『부산일보』1925년 5월 7일 기사.

<sup>56</sup> 『부산일보』1931년 4월 20일 기사.

## 참고문헌

### 1. 사료

『매일신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 2. 한국어 문헌

김영희,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상과 예술관-개인양식 성립기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제9집, 2010.

김이순, 「존재의 내면 표현을 위한 실험과 모색-권진규의 건칠조각」, 『미술사연구』35, 2018.

노성환, 「일본 시코쿠 순례 속의 한국문화」, 『일어일문학』74, 2017.

마산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백년사』, 2000.

문화재청-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2002-2011.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 불교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2013.

부산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2007.

부산일보사, 『新釜山大觀』, 1934.

서홍식, 「대조사 마애불 주변 암각서」, 『전라금석문연구』제24호, 2015.

손장원, 「인천신사국팔십팔영장 연구」, 『인천학연구』제24권, 2016.

신은영, 「향유와 보호의 역설-‘은진미륵’의 근현대 역사 경험」, 『미술사논단』제42호, 2016.

엘리자베스 키스, 송영달 옮김,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 책과 함께, 2012.

월영상, 「일본불교의 영장과 성지순례문화 연구-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52, 2008.

\_\_\_\_\_, 「단가제도의 성립, 정착과정과 일본불교계의 양상-근대의 불교개혁론에 이르기까지」, 『불교학보』45, 2006.

윤범모, 「권진규 조소예술의 종교성과 조형성」, 『현대미술학 논문집』5, 2001.

\_\_\_\_\_, 『김복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이경화, 「서울 〈鶴到庵 磨崖觀音菩薩坐像〉 연구」, 『미술사연구』16, 2002.

\_\_\_\_\_,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흥법대사상과 88영장」, 『동북아역사논총』47, 2015.

이은경, 「일본 ‘시코쿠헨로(四國遍路)’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일어일문학연구』81, 2012.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석제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14, 2012.

\_\_\_\_\_,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연구』, 세종출판사, 2013.

임보라, 「근대기 경상도 지역의 완호 불상 연구」, 『문물』7, 문물연구, 2017.

정영목, 『조선을 찾은 서양의 세 여인, 시선에 갇힌 진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지미령, 「일제강점기 한국내의 일본인 관음신앙 고찰-화계사소장 관음석불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38, 2015.

\_\_\_\_\_, 「군산지역 서국33소관음영장 성립에 관한 일고찰-동국사 관음석불군 조성과 관련해서-」, 『일본학』42, 2016.

진미지, 「조선탈기 소석불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_\_\_\_\_, 「근대 불교조각의 흐름」, 『금융 일섭, 근대 부처를 만든다』, 국립광주박물관, 2018.

\_\_\_\_\_, 「20세기 전반 불교조각의 흐름」, 『동양미술사학』24, 2018.

최 엽, 「서울 창신동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연구」, 『불교미술』제20호, 2009.

황이연, 「관측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도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97, 2018.

\_\_\_\_\_,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연구」, 『미술사연구』35, 2018.

허정도, 「근대기 마산의 도시변화과정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3. 데이터베이스

권진규 사이버미술관(<http://www.jinkyu.org>)

근대기 불교조각은 조선시대 전통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재질과 기법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개척하였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현대의 불상 제작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상 연대 표기방식도 대한제국 연호, 일본식 연호, 불교식 연대표기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기 불교조각은 전통양식과 복고양식, 일본을 통해 유입된 불상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전통양식은 조선후기 조각승 계보를 이으면서 불화소를 통해 불상과 불화를 함께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복고양식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상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특히 고려시대 마애불과 석불에 보이는 보관의 형태 등 일부를 차용하고 변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고양식의 등장에는 작가 개인의 성향과 근대 관광의 활성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장인들이 불상 제작 시 지역적으로 가까운 불상을 참고하면서 나타나는 지역성과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개항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소형석불은 광배에 번호나 시주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불상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업가 집단의 시주를 통해 제작되었다. 불상이 조성된 배경에는 일본의 영장순례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일본불상은 일본인 거주지가 조선인과 달랐고 예배의 대상이 일본인이었던 점,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밀교도상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Modern Buddhist Sculpture and Influx of Japanese Buddhist Sculpture

Kim, Yeon-jin\*

In the years between 1909 and 1950, new material and techniques for Buddhist sculptures were tested while honoring the traditions of Joseon, and a new and modern style evolved. The modern tradition established during this time is important as they greatly influenced the Buddhist sculptures of today. Modern Buddhist sculpture in Korea not only continued the tradition but also introduced new ideas for material and technique. The dating method on the sculptures also varies from the era name of the Great Korean Empire, the Japanese era name, and the Buddhist era, testifying to the transitions in the modern history.

Modern Buddhist sculpture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f the traditional style, the retro style, and Japanese style. The first, the traditional style, was made by sculptors who succeeded the monk-sculptors of the late Joseon through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Buddhist arts, and made Buddhist paintings alongside sculptures. The second, the retro style sculptures were made after those of the Unified Silla and Goryeo era. Specific features, including the shapes of the crowns, were adapted from the carved or sculpted Buddha statues of Goryeo. This retro style developed as a result of personal preferences, geographical considerations, and popularization of travel, a fact which made the images of traditional Buddhist art more accessible. Lastly, the Japanese style sculptures were mostly small stone Buddha statues inscribed with numbers or names of their patron on the halo. They were mostly produced around the open port area with Japanese businessmen as patrons, and were related to the Japanese practice of pilgrimage. However, the Japanese sculptures did not have a large influence on the Korean sculptures as Japanese residential areas were separated and their esoteric Buddhist iconographies were unfamiliar to most Koreans.

\* Ph. D. candidate, Dong-a University